

신안산선 4개 지하역사·인천공항철도 청라역 설계공모 작품 선정



건설본부 건축/설비처(처장 조순형)는 지난 13일 신안산선 여의도~대림삼거리구간 5개 지하역사 및 인천공항철도 청라역 신설에 따른 설계공모 작품심사를 시행하였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며, 1단계는 안산중앙(USKR)~ 광명~여의도까지 2018년에 개통할 예정이고 2단계는

여의도~서울까지 2022년 개통할 예정이다.
신안산선 여의도의 4개 지하역사는 여객의 편의성과 시각적·공간적 우수성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16개 설계안을 심사한 결과, 여의도역은 (주)해원까지 건축, 영등포역은 (주)근정건축, 도림삼거리역은 (주)백림건축, 신봉역은 (주)한국종합건축, 대림삼거리역은 유선엔지니어링건축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인천공항철도 청라역은 검암역과 운서역 사이에 신설되는 역으로 인천시 청라국제지구에 철도 대중교통서비스 요구 증대에 따라 역사 신설을 위해 상징성·지역특성·예술성 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설계안을 평가했다. 설계심사 결과 청라국제도시의 상징적 관문 역할과 교통시설간 One-Stop 환승체계 구축을 고려하여 설계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건축/설비처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과잉 설계가 되지 않도록 금번 당선작을 다듬고 보완해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설계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본부 정승 기자>

'저탄소 건설을 위한 교통분야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 공단,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구현 위한 대응 필요 -

녹색철도연구원은 지난 1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철도건설현장 탄소발자국 산정 연구」의 일환으로 '저탄소 건설을 위한 교통분야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에 따라 산업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2020년까지 국가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대비 30%) 달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철도 건설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 철도건설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현장 관리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저탄소 철도건설' 구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호남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의 인벤토리 구축작업 중에 있다.

이번 세미나는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적용사례, 건설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활용사례, 건설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계수 산정방법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2일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보다 구체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공단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녹색철도연구원 차효정 기자>



감성이 피어나는 꿈의 궁전, 충주 향산리 미술촌

상상하고 체험하는 감성의 도시
놓칠 수 없는 충주 오일장
사과의 산지 충주, 매력적인 사과국수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충주는 남한강이 흐르고 농토가 넓어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모여 살았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모두 자신의 영토로 삼고 싶어 했을 만큼 교통의 요충지였다. 충주에서 삼국의 역사유적을 모두 찾을 수 있는 이유이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에 누구나 마음껏 상상하고 체험하며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미술문화체험학교 '향산리 미술촌'이 자리하고 있다.

이 학교는 환경조각가이자 서양화가, 조형연구가인 홍영주 원장이 폐교된 세성초등학교 향산 분교 건물을 개조하여 만들었다. 이곳에서 공예 체험, 염색 체험, 나무공예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흙 놀이 체험, 떡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겨울에는 논마당에서 썰매타기, 장작패기, 장작불에 고구마 구워먹기 등의 체험도 즐길 수 있다.
향산리 미술촌에서는 1박 2일 체험도 할 수도 있다.

향산리 미술관이 꿈의 궁전이라 하여 아이들만의 것은 아니다. 매년 이곳을 찾는 1만3천여 명의 관광객 중, 학생의 비율은 20% 남짓이다. 학생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어른들이라는 이야기이다. 각종 기업체, 동호회 등에서도 많이 찾아온다고. 농촌의 소담스런 멋과 여유, 틀에 끼워 맞추지 않은 자연의 정겨움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향산리 미술촌에서의 체험이 특별한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상상에 날개를 달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어서 일 것이다.

충주를 방문한 날이 마침 오일장이 서는 날이라면 금상첨화이다. 충주 시내 오일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충주가 '중심'이라는 마음을 담아 매 5, 10일마다 열린다. 중심이라는 이유를 찾으려면 예전, 강줄기를 따라 배로 물건을 실어 오르내리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남한강의 너른 물길에 지나는 충주는 당시 물류의 중심지였다. 아직도 정터엔 그 규모와 인정이 살아있다고 한다.
충주는 이름난 사과의 산지이다. 이곳에 충주사과과학관이 있다. 충주사과과학관은 충주 사과의 과거와 미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관, 사과와 관련된 해충, 천적에 대한 학습장과 더불어 터치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사과게임체험장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사과 가공품 70여점도 함께 전시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충주의 사과국수가 눈에 띈다. 충주사과를 넣어 만든 국수는 충수까지 수선시켜 만들어 면이 매끄럽고 잘 퍼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레일&뉴스 이정우 기자>



경조사

■ 충청본부 건설처 김선중대리 결혼
- 일시 : 2011년 12월 24일(토) 오후 2시 - 장소 : 유성컨벤션웨딩 2층 팰리스룸

동절기대비 제189차 안전점검의날 일제점검 및 대국민 캠페인 전개

호남본부(본부장 임영록)는 지난 9일 제189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순천역 이용고객을 상대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본부는 이날 전라선이 복선전철화로 개통됨에따라 선로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홍보용 전단지 배부하였으며, 동절기 설해취약개소 및 화재우려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사고예방에 적극 앞장섰다.

또한 호남본부 관내 주요 철도건설목에서는 책임감리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이 건물목 안전통행에 관한 홍보를 위해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마을회관을 찾아가 홍보 및 철도공사로 인한 불편한 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뜻깊은 행사를 시행하였다.

<호남본부 진상은 기자>



차단업무수행자 역량증진교육 시행 - 안전사고예방 교육 및 고객의 소리 조사 -



기술본부(본부장 류승균)는 지난 5일부터 3일간 5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면서 공사관리관, 직감독자, 감리단, 시공사 등 차단업무수행자 총31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증진교육을 시행하였다.

본부는 열차운행선에서 연간 약 1,500여건의 차단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작업절차, 사고사례 등 안전사고예방 위주의 교육을 시행하였고, 교육참석자에 대하여 고객의 소리(VOC)도 조사하였다.

앞으로도 본부는 VOC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업무개선을 통한 내·외부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원활한 철도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야 할 계획이다.

<기술본부 임평익 기자>

호남본부, 연말연시 소외 아동과 즐거움 자리 마련

호남본부(본부장 임영록)는 지난 15일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소외계층과 함께 따뜻한 하루를 보냈다.

본부 직원 20명은 이날 조곡아동센터 아이들과 축구 등 운동을 함께 하였고, 또한 철도운동장 주변 환경정화활동, 삼겹살 파티 등도 마련하여 소외 아동들과 즐거움을 나누었다.

본부는 금번 행사를 통하여 관내 지역의 어려운 어린이가 어울리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으며, 지역에 사랑받는 철도 공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제고에 기여하였다.

<호남본부 진상은 기자>

